

Hanmaum Library Story

2019년 통권

한마음도서관 이야기

21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2019년 20만명이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을 이용하셨습니다 !!



조호경
한마음도서관장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네 명의 사서를 비롯한 모든 근무자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며 열심히 한 해를 달려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도서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되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 1층 리모델링입니다.

1층을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휴식 하고 독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생활SOC 공모 사업비 315백만원으로 8월부터 12월 공사기간까지 부족한 환경에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무인도서관 2개소 개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무인도서관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치는 거창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앞과 승강기산업단지 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 서비스 이용 개선입니다.

신간도서 5,000권, 특성화도서 1,000권, 디지털콘텐츠 300종을 확충하여 도서관 자료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와 임산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책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

스 서비스를 개설하여 도서대출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강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4기에 걸친 북스타트, 29개의 문화강좌, 51회 진행된 책읽어주는 날, 4개의 독서동아리 운영, 92회 진행된 어린이동화구연체험관 운영으로 연중 매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창한마음도서관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독서공동체 형성 및 문화소통으로, 4월 도서관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으로 작가초청강연회 등, 1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3회의 테마도서 서평전시회, 총 10회에 걸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도서관 회원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비를 개소당 2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였고, 순회사서 파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책 판매행사를 12회 개최하여 수익금 1백2십만원 전액을 거창군장학회로 납부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보다 알차고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CONTENTS



03 신규사업

도서관 1층 리모델링	04
경남 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06
맘(MOM)편한 도서관서비스	08
책이음	09

16 글마당

유년으로 가는 여행 - 우진숙	16
약자지킬 작은도서관 - 안현	18
참여후기 - 이부자	20
2020도서관 뉴스	21

10 진화하는 도서관 서비스

너, 그거 아니?	10
한마음도서관 알림 톡	12
장서점검	13

22 한마음프로그램 갤러리

동화구연 체험관	22
독서문화프로그램	26
북스타트	27

14 공모사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4
--------------	----

도서관 1층 리모델링

한마음도서관은 도서관 1층을 2019년 9월부터 4개월간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이 단 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책을 매개로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 사업규모 : 연면적 438.8㎡
(도서관 1층 디지털실, 정기간행물실, 점자자료실, 홀)
- ▶ 소요예산 : 315,450천원(균특 120,000, 군비 195,450)
문화분야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달라졌어요

- ▶ 이용률이 저조한 디지털실과 점자자료실 통합
- ▶ 정기간행물실 및 기존 점자자료실 공간에 북카페 설치

before



▶ 시설 공간 변경 계획

구분	당초	면적(m ²)	변경
계		438.8	
1층	점자자료실	28.6	북카페
	정기간행물실	32.23	북카페
	홀	204.17	북카페 및 홀
	디지털자료실	173.8	디지털자료실, 점자자료실(통합)

 북카페

도서관 1층 북카페는 기존 1층 정기간행물실과 점자자료실을 통합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가구들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해 최신기종의 PC로 교체하였으며,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after



경남최초 스마트 도서관 운영

이용방법

스마트도서관은 한마음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로 이용가능 합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 1인당 2권까지 가능합니다.

※ 메인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책바구니에 담은 도서를 대출합니다.

대출



대출메뉴



회원인증



책바구니 확인



도서확인



대출완료

❗ 대형터치스크린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이용해 보세요.

③ 번 화면에서 [검색대출]메뉴를 선택 > 도서검색 > 도서대출

반납



반납메뉴



도서인식



도서투입



반납완료

📍 스마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가능

문의전화

장 애 처 리 : 02-2024-9999 (내선4번)

대출반납문의 : 055-940-847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기창^{기창} 스마트무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이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도서관에서 비치된 도서를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장소

스포츠파크, 승강기안전기술원 내



맘(MOM)편한 도서 배달 서비스

맘(MOM)편한 도서 배달 서비스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맘(7개월 이상 임산부 ~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회원님께 집으로 도서를 직접 배달&회수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맘(MOM)회원신청

도서관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 온라인 신청
비회원: 도서관 방문신청

이용안내

이용대상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회원
(거창군에 주소지를 둔 7개월 이상
임산부~24개월 이하 영아 양육자)

대출권수/기간

1회 10권까지 / 월2회 이용가능

운영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반납 신청

접수

매일

발송 및 회수

매주 화·목

유의사항

반드시 한마음도서관
회원이어야 신청 가능

목~월까지 신청 : 화 발송
화~수까지 신청 : 목 발송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책이음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
책이음 서비스

‘책이음’이란?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에 책이음이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경우, 책이음회원 인증 처리 후 이용자에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고,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본인이 가입한 도서관 현황과 대출 및 반납한 모든 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책이음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http://book.nl.go.kr>



한마음도서관에서는

어린이 회원을 위한 독서통장 발급할 수 있다.



한마음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이 회원 누구나 독서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독서통장 이번주에는 어린이실에서 독서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세 번 받을 수 있다.

한마음도서관에서는 3단계의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북스타트, 그림을 그려 볼까? 북스타트 플러스, 유치원 친구들을 위한 북스타트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나이에 맞는 책꾸러미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스타트 한 번만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받으러 오세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책을 2배로(10권) 빌릴 수 있다.



한마음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째주 수요일은 기존 대출권수 5권보다 2배 많은 10권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리즈를 한번에 몰아 보고 싶을 때 이용하면 참 좋겠죠?

한마음도서관에는 큰 글자도서, 책읽어주는 더책이 있다.



큰 글자도서

한마음도서관은 작은글자가 잘 안보이는 분들을 위한 큰글자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거창은 문화도시답게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을 사랑하는 열정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글씨로 된 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저하된 이용자들을 위하여 종합자료실에서는 큰글자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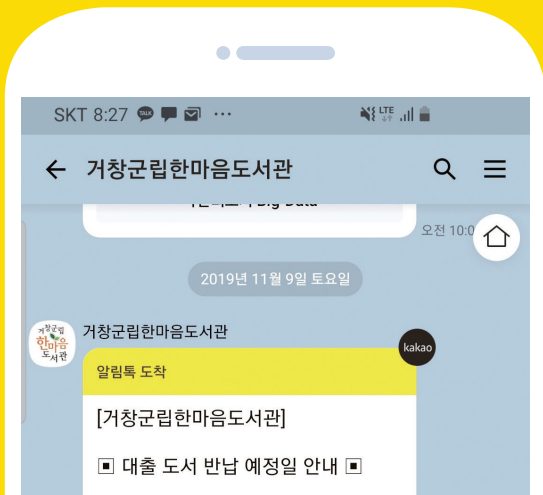
더 책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책을 읽어주고 책의 내용도 함께 보여주는 더책이 있습니다. 더책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NFC를 활성화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더책은 영어로 책을 읽어줘서 인기가 많습니다.



2020년에는 이용이 편리하여 인기가 많은 특성화 도서를 더 많이 구입, 비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 찾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마음도서관과 카카오톡 친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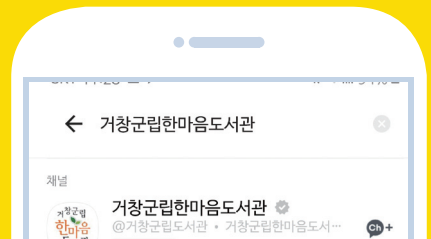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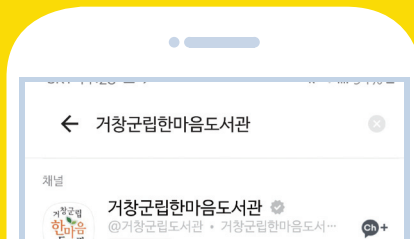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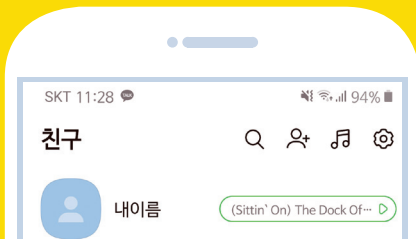
한마음도서관 알림톡 운영

- ❶ 도서 반납 및 연체 안내 등 도서관 이용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도서관 서비스
- ❷ 기존의 단문 SMS는 80자 이내의 문자로만 발송
-> 대출된 도서 서명을 비롯한 상세정보 모두 제공(최대1,000자)

KakaoTalk **플러스친구**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채널

- ❶ 채널 추가방법: 카카오톡 채팅창 돋보기 선택->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검색-> 검색 후 채널추가 선택



- ❶ 도서관 이용정보 및 도서관 문화행사 정보 안내



장서점검

한마음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서관 전체 장서 12만여권을 점검하였습니다.

장서점검은 장서목록과 실제도서 대조를 통해 파오손·재정리·소재 불분명 자료를 파악하여 보수하거나 수정하고, 미대출도서, 이용가치 상실도서를 선별하여 서고에 재배치 또는 폐기대상 자료로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장서점검기로 도서의 RFID태그를 스캔하여 장서의 오배거나 시스템 오류를 파악하여 수정하고 정정하는데, 이는 기존의 바코드 장서에 비해 5배 정도 빠르게 장서점검할 수 있습니다.

장서점검 결과, 100여권의 자료실 오배가 자료와 소재가 불분명한 70권의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배가 자료는 제자리로 비치, 오류가 뜬 자료는 정정처리 하였으며, 장서점검 기간 동안 발견된 파오손도서는 선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장서점검으로 분실된 줄 알았던 책들을 다시 찾아 제자리에 비치하였으며,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삶은 계속된다”

현장과 일상 안에서 생생하게 구현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테마의 강연과 탐방으로 인문학이 딱딱하고 고루하다는 편견을 없애고자, 우리 동네 도서관에 마실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인문학을 제공하였습니다.

급박하게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의 삶들에서 잠시 벗어나, 길을 걷다 발견하는 인문을 통해 잠시 쉬어가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차시



공감클래식(이혜명 강사)

- 강연1 : 로맨틱한 선구자 베토벤
- 강연2 : 바그너,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탐 방 : 2019전주비바체실내악페스티벌 (전주한벽문화관)

2차시



문학 작품의 현장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다 (이경미 강사)

- 강연1 : 문학과 철학 속의 사랑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가'
- 강연2 : 사랑의 본질과 현대인의 사랑 '사랑은 왜 아픈가'
- 탐 방 : 포항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호미곶새천년기념관, 장기유배체험촌



한마음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을 만났을 때....

특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인문활동가의 탁월한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인문학적 가치를 담아낸 주제를 클래식, 문학, 미술 분야를 아울러 총 10회에 걸친 강연과 탐방 그리고 마지막 후속모임까지 총 363명의 참여자와 함께 누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마음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 지역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문학적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3차시



이땅의 유토피아를 찾아서(정혜정 강사)

- 강연1 :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염원
'동양의 산수화'
- 강연2 : 이땅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 탐 방 : 서울 인왕산, 윤동주 문학관,
정동1928아트센터, 「筆意山水」 전시관람

후속모임



후속모임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인문학 살롱'





유년으로 가는 여행



우진숙

한마음그림책동아리강사
동화작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장소로 여행하지만, 상상 속에서라면 미래나 과거의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다.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보고 싶은 어린 시절 어느 날이 누구에게나 하루쯤은 있으리라.

하지만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은 아직 판타지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한마음도서관 그림책동아리 모임 시간은 유년기로 가는 시간여행일 때가 많다. 그 시간은 참 행복한 판타지다.

누군가의 무엇이 되기 전의 그냥 ‘나’ 였던 시절이 그리운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지금이 힘들고 괴로워서도 아니고 그때가 무척 행복해서도 아니다. 그 시간은, 흔히 말하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누구의 아내거나 남편 누구의 엄마 아빠라는 무게도 모두 내려놓고 유년으로 돌아가 본연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 참 반가운 일이다. 유년의 나와 만나는 건 먹은 나이만큼이나 오랜만이 지않은가.

우리는 그 여행에서 때로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어린 나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림책 속의 주인공을 다시 들여다보고,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보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위로는, 결국 어린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고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손길이다. 그래서 때론 경건하게 때론 왁자지껄하게 그림책 이야기 세계에 빠졌다가 나오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모임을 마치고 3층 시청각실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올 때면, 올라갈 때보다 어깨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따스해진 걸 느낀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둥지로 돌아가 충전한 엔도르핀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줄 시간인 거다.

우리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한마음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모인다.

미리 고른 그림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고 여러 가지 독후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독후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토론이다. 아니, ‘토론을 빙자한 수다’다.

함께 만드는 마인드맵 같은 수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드러내고 듣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시간이다. 그러니 누가 내놓았든, 어떤 생각이든 모두 옳은 생각이다. 형식을 갖춘 논제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찬반 양쪽이 나뉘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돌아가며 회원 중 한 사람이 모임의 주제를 정하고 활동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이라고는 해도 대충 떠드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모으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하거나 맛있는 걸 찾아 먹고 예쁘게 꾸미기도 한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한마음도서관에 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어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마음그림책동아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 그림책을 읽는다. 그리고 믿는다. 행복한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아들에게 딸에게 제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신이 이미 가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왁자지껄 작은도서관



안 현 목사
큰바위작은도서관 관장

큰바위작은도서관에서는 책읽기 동기부여를 위해 달란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분 책 읽으면 1달란트가 적립됩니다. 1권을 대여해도 1달란트가 적립됩니다. 달란트 통장에 도장을 찍어서 적립해 줍니다. 토요일이학교에 참석하면 시간 당 3달란트를 적립해 줍니다. 위천초등학교 체육학교가 끝나는 12시에 시작합니다. 학기 중에는 순회사서 선생님이 책놀이를 진행합니다. 방학 중에는 몸놀이와 말놀이도 할 예정입니다.

달란트로 도서관 부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방이 타기 1달란트, 스마트폰 1시간 이용에 1달란트, 오락게임기는 2달란트입니다. 사탕, 젤리, 과자도 살 수 있습니다.

달란트 통장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으로 학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천초등학교 학생 중 90% 이상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열심당원은 20명 정도입니다. 토요일이학교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주로 저학년입니다. 보통 5~6명, 많으면 10명 정도가 책놀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태풍이 불거나 명절 즈음에는 한 명도 안 와서 사서선생님이 쓸쓸히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수업은 12시에 시작하지만 일찍부터 친구들이 옵니다. 여름방학때는 눈뜨고 바로 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쯤이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책놀이 수업 후에는 점심을 먹습니다. 각종 컵밥과 컵라면 중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1학년 준수가 짜장라면을 먹다 말고 일어납니다. “나~ 못 먹어요~ 이 아파요!” 이렇게 보니 앞니 하나가 흔들흔들합니다. “안돼! 이 빼고 먹을 거야? 먹고 뺄거야?” 먹자니 아프고 빼자니 무섭습니다. 무작정 안 먹겠다고 우기는 준수를 붙잡아 앞니에 실을 감았습니다. 준수는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셋 세고 뺄다. 하나~” 둘에 확 잡아당기니 앞니가 쑥 빠집니다. “피 나요 피! 나 못 먹어요!”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준수는 짜장라면을 다 먹고 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비오네 가족이 도서관에 놀러왔습니다. 비오는 5살인데 한글도 읽을 줄 알고 알파벳도 압니다. 작은 방에 있는 소리나는 책들을 좋아합니다. 형님 누나들이 안 놀아줘서 불만인 정우가 비오를 반겨줍니다. 팽이 놀이할 때도 안 꺼주고 아직 스마트폰 게임도 할 줄 모르는 정우는 이제야 신이 납니다. 둘이서 책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5~6학년 친구들은 토요일에 바깥입니다. 아침먹고 친구들과 읍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롤러스케이장도 가고 PC방도 가고 편의점에서 밥도 먹고 분식점도 갔다가 오후쯤 도서관으로 옵니다. 아직 해가 있으니 집으로 가봐야 심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곳이 위천에는 작은도서관뿐입니다. 차량운행도 해주니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친구들과 스마트폰 영상을 같이 보거나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짹짹 소리를 지르며 빙빙이를 탑니다. 덩치 큰 놈들이 우르르 들어가니 빙빙이가 딱 찹니다. 고학년들이 들어오면 저학년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고학년이라도 유치원생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형 동생이 어울려 놀입니다.

신기한 것은 고학년들의 달란트통장입니다. 적립금이 줄지를 않습니다. 책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줄 알고 거의 적립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쓰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학년들의 달란트통장은 복리로 이자가 붙는 모양입니다.

오후 늦게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양말, 외투, 과자, 문구류 등 아이들의 흔적이 남습니다. 민설이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되돌아왔습니다. 작은도서관, 학교 운동장, 동네 문방구를 순회하며 놀았으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빠 민서까지 합세에서 찾으려 다닙니다. 꼭 찾아야 할텐데, 엄마에게 혼날까 걱정입니다.

저녁에 고등학생 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부방 이용해도 되요?” 시험기간이지만 형제가 많아 집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응~ 그래 볼 잘 끄고 가!” 은표는 밤 11시 30분까지 공부하고 고맙다는 문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큰바위작은도서관의 토요일은 왁자지껄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한心고전인문학당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부자
한심고전인문학당 수강생

“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 시간

”

전반기 수업으로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에우튀프론. 후반기 수업으로는 걸리버 여행기, 책들의 전쟁, 유토피아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작품과 관련된 시대상황, 사상, 철학 등을 먼저 리더의 자세한 설명 후에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과거의 철학 사상 등이 현대에도 읽혀지고 수용되는 부분들로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부족함으로 인해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한 시간 이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걸리버 여행기」를 접하면서 접하기 전에는 소인국, 대인국 등 동화로만 생각했었던 작품이 많은 풍자 특히 정치, 종교 등 다방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풍자적인 내용들로 작가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한 부분들. 정치는 과거나 현재나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다는 점. 교육에 대한 작가의 희망사항. 등...

또 다른 책 「책들의 전쟁」에서는 기본 종교에서 변형되어가는 종교 등... 작가의 높은 역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풍자적으로 세세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역량은 많은 다양한 독서가 축적이 되어 표현되지 않나 싶다. 이런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해준 한마음 도서관 한심고전 인문학당 프로그램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과 행복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도서관은 나에게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다.
도서관은 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다.
도서관은 나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제공 하는 곳이다.





1. 초등학교 북스타트 운영

기존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북스타트의 대상을 확대하여 2020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북스타트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2020년 초등학교 신입생(2013년생)들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초등학교 시작과 함께 책에 대한 흥미를 유도 할 예정입니다.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선정한 단계별 그림책과 독서가이드, 도서관가방을 포함한 책꾸러미를 학교로 직접 찾아가 배부하고, 도서관 회원가입 시에는 나만의 독서통장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안전한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의 장서는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특성상 책이 쉽게 더러워져 어린이자료실 선생님들이 수시로 복티슈로 책을 닦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층 더 깨끗한 장서를 제공하기위하여 어린이실 전용 책소독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2층까지 가지않고 1층에서 바로 책을 소독하고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무거웠던 어린이실 주 출입문을 어린이들이 쉽고 안전하게 자료실을 오갈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조속히 설치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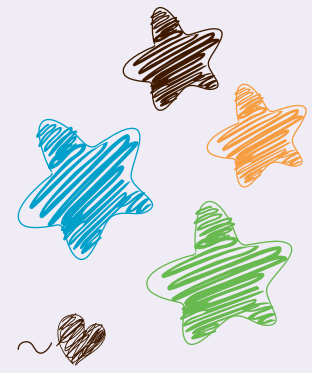
3. 도서관 장서소독

도서관은 책이 많은 특성상 책으로 인한 종이 먼지와 부유물이 쉽게 생성되는 편입니다. 한마음 도서관은 각 자료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비치하고 도서관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여 깨끗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더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장서를 대상으로 도서관 장서 및 서가를 청소하고 소독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책 하나하나 미세먼지와 분진을 제거하고 소독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의 기능을 두지 않고, 지역 시민사회 속으로 파고드는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한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요즘 추세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좀 더 집약된 고밀도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인문가치에 공감하고,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역할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가치에 공감하고 삶의 즐거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강연, 체험, 전시, 공연, 작가 강연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



영어그림책이랑 놀자 1



영어그림책 읽어주는 날



영어그림책이랑 놀자 2



영어그림책이랑 놀자 3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색연필 드로잉



신나는 책놀이



애니로 배우는 영어회화



알콩달콩 책놀이



성인 대상 프로그램



방구석 클래식



중국어 쉽게 말하기



봄봄 퀼트



주역





도서관 행사(도서관주관 행사 및 독서의달 행사)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

올해의 공식주제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로 '밥아저씨의 매지컬드로잉' 공연 및 '새로운 보금자리' 원화아트액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독서의 달 행사로는 고정욱 작가 도서展, 과월호 잡지배부, 파손도서 충격展, '박종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테마도서 서평전시, 수강생 퀼트작품 전시회 등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행사로 도서관 이용자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퀼트 수강생 작품전시회



새로운 보금자리 원화전시



파손도서 충격展



밥아저씨의 매지컬드로잉 공연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서평 전시



박종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작가초청강연회



황우창 작가초청강연회



탁현규 작가초청강연회



고정옥 작가초청강연회



권혁재 작가초청강연회



한심고전인문학당 & 독서동아리



한심고전인문학당수업



병산서원 문학기행



도산서원 문학기행



한마음독서동아리





동화구연 체험관



어린이 동화구연 체험관이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 ★ 대 상 : 거창군 관내 5~9세 어린이 단체(어린이집 및 유치원)
- ★ 운영기간 : 3월 ~ 11월 매주 월, 수요일(오전 10시 ~ 12시)
- ★ 장 소 : 지하1층 다목적실
-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후 체험관 신청서 제출 ☎ 055-940-8470)





북스타트

아이와 나를 이어주는 생애 첫 선물!
북스타트 책꾸러미 받아가시고
아이와 더 가까워지세요.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 코리아와 거창군이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운동입니다.

북스타트 특강



대상 : 북스타트 회원 중
8~27개월 영·유아와 부모
신청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운영장소 : 1층 어린이자료실 내 유아방
운영기간 : 3월~12월(연4기)
1기:3~4월 / 2기:5~6월
3기:9~10월 / 4기:11월~12월
강좌안내 : 4단계 북스타트 특강 운영

북스타트 참여 방법

대상 : 거창군 내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어린이 예정)
북스타트 : 1~2세
북스타트 플러스 : 3~4세
북스타트 보물상자 : 5~7세
초등학교 북스타트 : 초등 1학년
(2020년 시행예정)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도서관 회원증

회원가입 : 보호자가 직접 1층 어린이 · 모자
자료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배부장소 : 1층 어린이 모자 자료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단계별 그림책 2권, 선물, 독서가이드 등
(아이의 성장에 따라 단계별 책꾸러미 추가신청)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어린이/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자유열람실(3층)
평일	09:00 ~ 18:00	09:00 ~ 22:00	08:00~22:00
토/일요일	09:00 ~ 17:00	09:00 ~ 17:00	08:00~22:00
휴관일	휴실		09:00~18:00

도서 대출/반납

- 대출권수 : 1인 5권
- 대출기간 : 14일(반납예정일 이내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 연 체 시 : 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 참고사항
 - 장기연체(7일 이상 연체) 3회 시 6개월 추가 정지
 - 동일 도서의 재대출은 7일 이후에 가능(반납 당일 재대출 불가)
 - 반납연기는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940-8470)로 요청 가능
 - 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자료로 변상

도서야간대출

- 신청시간 : 09:00 ~ 17:00(자료실 운영 시간 내)
- 대출시간 : 18:00 ~ 22:00
- 대출장소 : 평일(2층 종합자료실) / 주말(행정실)
- 신청방법
 - 자료 소장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
 - 각 자료실로 전화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 수령 시 한마음도서관 회원카드 확인 후 대출

예약도서 신청

- 관외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반납 시 우선 순위로 도서 대출 가능
- 예약신청 → 예약 도서 반납 시 SMS 발송 →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대출
(미대출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회원가입방법

도서관회원가입 방법

- 한마음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회원가입 PC이용
- 회원발급 데스크에 신분증 제시- 직원확인
- 회원정보입력
 - 만 14세이상(본인인증)
 - 만 14세미만(본인인증 + 법정대리인 동의)
- 회원증 발급 및 수령